

# 진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활동지원

### 12일까지 참여자 모집...전시·창작·연주 지원 개인 100~200만원·단체 150~300만원까지

대한민국 유일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이 문화예술진흥기금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월 25일 밝혔다. 군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개인은 100~200만원, 단체는 150~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활동 지원은 ▲문예지 발간, 전시·창작·연주 지원(지역예술육성 분야) ▲의료비와 교육생 지원(예술인 복지 분야) 등이다. 특히 전라남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예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진도 출신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악, 한국무용 등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강습료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사무실 소재지나 대표자 주소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나 개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문화진흥기금의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홈페이지 통합검색에서 '고시공고' 코너를 검색하면 신청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예술체육과 관계자는 "지역 예술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문화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앞으로 진도군 문화예술의 도약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진흥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확충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진도군 출연금과 기부금 등을 통해 문화진흥기금 50여억원을 5년만에 조성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장흥군,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캠페인 보건소 포함 다중이용장소 4개소에서 실시

장흥군은 지난 2월 24일 군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유도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전남22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이 캠페인은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3월에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불법소각 금지,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활동에 군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보건소를 포

함한 4개소에서 동시에 추진됐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12월~3월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군에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년 저감 장치 지원 등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도 폐기물 배출 줄이기, 영농 잔재물 미소각 등 생활 속 실천 요령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비파, 주산지 완도에서 본격 출하...올해 400t 생산 전망

### 풍부한 일조량·해풍 영향 당도 높아

완도지역 주산지에서 황금색 웰빙 과일인 비파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전국 비파 재배면적 101ha 가운데 완도지역이 72ha에 달해 최대 주산지로 꼽히고 있다. 완도 비파는 온난한 해양성 기후 지역에서 자라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의 영향으로 당도가 높다.

특히 비가림 하우스에서 겨울철 최저 온도를 0도 이상, 주간 온도를 30도 이하로 유지해 국내에서 가장 빨리 출하된다. 올해 완도지역 비파 생산량은 400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전국 백화점과 온라인 마켓 등으로 출하되고 있다. 비파 과실은 황금색을 띠며 폴리

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A, 칼륨 등이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과 혈압 조절 등에 도움을 준다. 잎은 우르솔릭산, 에피카네킨, 아미그달린 등을 함유해 면역력과 피부 노화 방지, 충치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파는 과실뿐만 아니라 농축 주스, 비파 잎차, 비파 와인, 비파 식초 등으로 제조해 판매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친환경으로 재



배되는 완도 비파의 맛과 향, 효능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강진 버스터미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각종 민원서류 365일 연중무휴 발급 가능

강진군은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강진 버스여객 터미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현재 군청 민원실과 읍사무소, 터미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4대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00여 종의 제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터미널 이용객도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개선을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강진 장미, 온라인 판매 기획전 3만5천 송이 하루만에 완판했다

### 강진군·전남도·전남지방우정청과 추진...조기품질

강진군·전남도·우정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미재배 농업인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 농업인이 직접 추진한 온라인 화훼 특별기획전이 판매개시 반나절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입학식,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공판장 유찰 및 산지폐기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장미 재배 농업인들을 위해 2월 24일부터~3월 14일까지 장미 특판 행사를 준비했다. 이에 강진군 온라인쇼핑몰인 '조록믿음', 전라남도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우정청 온라인쇼핑몰인 '우체국쇼핑'에서 행사당일 동시 판매한 결과,

개시 반나절 만에 신청자 폭주로 장미 35,000송이가 조기 품절 되었다. 이에 군은 주문이 완료된 건에 한해 순차적으로 장미를 발송할 예정이다. 조우철 망심화훼법인 대표는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자골 강진 장미를 전국에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특별기획전이 화훼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농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활성화를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해남군, 상수도 현대화 사업 '박차'

### 2~3월 블록시스템 구축 위한 단계적 단수 조치 실시

해남군이 관내 노후 상수도관 등을 교체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비 16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31억원을 투입,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해남읍을 비롯한 송지면, 황산면, 문내면 일원 노후상수도관 105km를 교체하고, 블록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해남군 전역을 21개 블록으로 나누어 상수도 사고 발생 시 블록을 차단해 단수 지역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줄이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블록별 고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단계별로 블록내 제수 밸브를 조작할 예정

으로, 블록 고립에 따른 단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블록 고립을 위한 단수 지역은 2월 23일 송지·북평지역, 2월 25일 삼산·해남읍 외곽지역, 3월 2일 황산·마산지역, 3월 4일 화원·문내지역이다. 단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을 가장 적게 쓰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실시하며, 단수 전 주민 홍보와 함께 문제 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80년 설비된 해남읍 상수관망을 비롯해 해남군 상수도는 2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되면서 누수량이 증가하고 여름철 녹물이 발생하는 등 주민 생활에 각종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동취재본부



#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